

아름다운 웹사이트 만들기 시리즈
Brief books for people who make websites

NO.

4

이단 마콧 **Ethan Marcotte**

반응형 웹디자인

FOREWORD BY 제레미 키스



A BOOK APART

이단 마콧 **Ethan Marcotte**

반응형 웹디자인

출간에 앞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웹엑츄얼리는 어 북 어파트^{A Book Apar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름다운 웹사이트 만들기’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 북 어파트는 웹표준 기술의 세계적인 선구자이자 글로벌 웹디자인계의 진정한 그루^{Guru}인 제프리 젤드먼^{Jeffrey Zeldman}이 설립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웹디자인계에서 실력 있고 전도 유망한 최고 전문가들에게 집필을 의뢰해 웹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핵심 분야의 책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중 네 번째로 출간된 《반응형 웹디자인》입니다. 현재 글로벌 웹디자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른 혁신을 통해 출판 고유 영역의 많은 디자인 관련 기술을 웹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반응형 웹디자인’은 출판의 제약을 뛰어넘는, 웹의 가변성을 심분 활용하는 기술들을 보여줍니다.

모바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웹디자인 영역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각기 다른 기기와 그에 따른 해상도를 따라잡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반응형 웹디자인’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단 마콧은 가변 그리드, 가변 이미지, 미디어 쿼리의 기술을 결합해 웹디자인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

으며, ‘모바일 우선주의’의 철학을 적용해 좀 더 책임감 있는 반응형 웹디자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웹엑츰리팀이 2011년 애틀란타에서 열린 ‘An Event Apart’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이단 마콧은 ‘반응형 웹디자이너의 작업 흐름The Responsive Designer’s Workflow’이라는 강연에서 이 책의 5장에서 작업 중인 프로젝트라고 소개한 ‘보스톤 글로브’ 사이트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이 유연하게 바뀌는 것을 보고 관객들의 반응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또한 그는 방대한 콘텐츠를 다루는 이 사이트를 반응형 웹사이트로 리뉴얼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반응형 웹사이트를 작업할 때 바뀌어야 할 우리의 웹디자인 작업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반응형 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은, 디자이너와 개발자 두 팀이 고도로 협력하여 디자인, 개발, 검토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식이 철저히 분업화된 선형적 워크플로우 방식이라면, 반응형 웹디자인의 작업 방식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원형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옵먼트(디자인 design + 개발 development)’라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 디자인과 개발 과정의 반복과 협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자인과 개발을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웹엑츰리팀도 처음 회사를 만들 때부터 이런 워크플로우를 통해 팀

조직을 꾸려 웹사이트를 제작해왔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how} 그리고 왜^{why} 이런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공적인 반응형 웹디자인의 조건은 첫째, 사용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둘째, ‘모바일 우선주의’에 맞는 철학으로, 셋째, 디자인과 개발의 유기적인 협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웹디자인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새로운 개발 툴과 좀 더 쉬운 접근법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는 브라우저와 기기가 늘어날수록, 데스크톱 그 이상의 사이트 제작에 관심을 갖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웹의 제작 방법과 웹디자인 과정, 웹디자인에 대한 질문과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 등이 수없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웹디자인 관련 종사자가 멋진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웹엑츠크얼리 북스팀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웹사이트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많은 도움을 준 웹엑츠크얼리팀, 그리고 꼼꼼하게 기술 검토를 도와주신 윤원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자 인사말

한국에서 《반응형 웹디자인》을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용자는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모바일 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넷북, 태블릿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기와 브라우저를 통해 방문합니다. 이 책에서는 가변 그리드, 가변 이미지, 미디어 쿼리를 포함한 CSS 기술과 디자인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사용자가 어떤 크기의 디스플레이에서 사이트를 방문하든 보다 높은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프리 젤드먼^{Jeffrey Zeldman}과 이단 마코트^{Ethan Marcotte}

We are delighted to see Responsive Web Design published in Korea. From mobile browsers to netbooks and tablets, users are visiting your sites from an increasing array of devices and browsers. With this book, you will learn CSS techniques and design principles, including fluid grids, flexible images, and media queries, so that you can deliver a quality experience to your users no matter how large (or small) their display.

Jeffrey Zeldman and Ethan Marcotte

번역 감수

2010년 5월, A List Apart 블로그에 ‘반응형 웹디자인’이 소개되자 이 접근 방식은 곧 많은 화제가 되었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적용 사례 사이트들과 함께 뒤늦게 소개되면서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 원칙과 철학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반응형 웹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이 접근 방식을 개념화하고 전파한 이단 마콧의 책이 국내에 출간되어 국내 사용자도 그의 원칙과 철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응형 웹디자인’은 단순한 하나의テクニック이 아닌, 생각하고 고민할 점이 많은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 책의 결론부에서 이단 마콧이 말한 것처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반응형 웹디자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개념과 방법이 과연 지금도 최선인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반응형 웹디자인’에 관심 있고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마크업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 책의 원래 목적 대상인 디자이너와 프로젝트에 참여할 작업자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이단 마콧이 제안하는 실질적 협업 방식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감해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원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UI 개발자로 근무 중
10K Apart Contest 2011에서 기술부문 우수상(Best Technical Achievement) 수상
(10K Apart(<http://10k.aneventapart.com>)는 An Event Apart와 Mix Online이
공동 주최한 웹앱 공모전을 말한다.)

서문

언어는 마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마법 또는 주문을 걸다는 뜻으로 쓰였던 ‘글래머glamour’라는 단어는 ‘그래머grammar’에서 유래했습니다. 언어가 지닌 힘 중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가장 신비스러우면서도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웹디자인의 짧은 역사는 이미 언어 변형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제프리 젤드먼Jeffrey Zeldman은 ‘웹 표준’이라는 용어를 제시했고, 제시 제임스 개럿Jesse James Garrett은 ‘Ajax’라는 용어를 만들어 웹의 상호작용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단 마콧Ethan Marcotte은 ‘반응형 웹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이라는 용어를 만들며 무언가 특별한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유체 그리드Fluid grids’, ‘가변 이미지flexible images’, ‘미디어 쿼리media queries’는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지만, 이단은 이 기술을 하나로 결합해 우리가 웹디자인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단은 글재주가 뛰어납니다. ‘반응형 웹디자인responsive web design’에 대한 책을 쓰기에 더없이 완벽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것은 바로 반응형 웹디자인에 관한 책 중 결정판을 썼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작 중인 웹사이트에 화려한 감각을 더해줄 팁이나 기법을 찾고 있다면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작고도 근사한 책은 더 근원적인 수준의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그다지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다음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정리해보세요. 가볍고, 즐겁고, 솔직하고, 유쾌한 스타일로 전개되는 이단의 화법 덕에 어찌면 여러분의 사고에 변화가 다가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분의 신경 전달 회로에 펼쳐내는 마술은 분명 웹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단 마כות은 마법사입니다. 이제 그의 주문에 빠져들 준비를 하세요.

제레미 키스 Jeremy Keith

반응형 웹

“Something there is that doesn't love a wall...”
(담장을 좋아하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

— 로버트 프로스트 Robert Frost, 《담장고치기|Mending Wall》¹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낱장으로 프린트해서 읽을지, 책으로 읽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PC에서 전자책 형태로 스크린에 띄워서 보거나 아침 출근길에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이 글을 넘겨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볼 수 없는 장애로 인해 스크린 리더가 이 글을 읽어줄지도 모르겠네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에 대해 저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책을 어떤 방식으로 볼지 모릅니다. 아니 알 수 없다는 것이 맞겠군요.

¹ 미국의 국민시인으로 존경받는 로버트 프로스트(1874~1963)의 시집 《보스턴의 북쪽(North of Boston)》(1914)에 수록된 시. 사회공동체 의식을 주제로 이야기하듯 전원생활과 풍경을 묘사하며 담담한 어투로 명상적인 인생을 이야기한다.

가변 그리드

대학 시절, 한 교수님께서서는 모든 예술운동은 -무지컬, 문학 또는 순수 미술이든- 그 이전 예술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과 같은 고전 할리우드 영화에 대응하고자 60년대 영화 제작사들은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나 ‘졸업’과 같은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실낙원》의 저자인 존 밀튼¹은 이전의 문학적 선구자(또는 문호)들을 지옥 속 인물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재능을 노골적으로 빈정거렸습니다. 그리고 듀크 엘링턴², 베니 굿맨³Benny Goodman의 환상적인 편곡이 없었다면 찰리 파커⁴Charlie Parker의 실험적 비밥재즈⁵Bebop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¹1608~1674,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국 시인 겸 청교도 사상가

²1899~1974, 미국의 피아니스트이자 재즈음악가

³1909~1986, 미국의 클라리넷 연주자이자 스윙 재즈음악가



가변 이미지

웹페이지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우리는 복잡한 가변성을 유지해주는 그리드 기반의 레이아웃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변 그리드를 처음 설계했을 때 저 스스로 자랑스러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웹디자인에서 자주 그러듯 실망이 밀려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든 페이지에는 텍스트만 가득하고 다른 엘리먼트는 없습니다. 사실 텍스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가변적인 컨테이너 안에서 텍스트는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웹페이지에 이미지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가변 그리드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로 너비가 고정된 이미지를 가변적인 디자인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마크업, 마크업으로 돌아가기

해답을 찾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블로그 모

4 미디어 쿼리

저는 대부분의 업무 경력 동안 고정되지 않은 가변 레이아웃의 충실한 지지자였습니다. 가변적이거나 완벽히 유연한 레이아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추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웹이 갖는 변화, 즉 사용자의 브라우저 창 크기의 변화, 디스플레이 크기의 변화나 기기 해상도의 변화에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 가변성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미래에도 사용이 가능한’, ‘기기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과 같은 식의 표현을 자주 씁니다. 가끔은 동료들 사이에서 저 혼자만 다른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Robot or Not 사이트가 당장은 유연하게 동작할지라도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변 그리드는 고정 레이아웃보다 브라우저 창 크기와 스크린 해상도의 변화에 대응하



반응형으로 변형하기

“도는 따르는 이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나,
형태는 곧 사라진다.
형태를 고수하려 하지 말라.
감각대로 흘러가게 하라.
마치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 노자 《도덕경》 32장, '형태SHAPES'

여러분은 반응형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배웠습니다. 비율이 유지된 가변 그리드를 만드는 방법을 통달했고, 고정 너비 미디어를 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미디어 쿼리를 통해 여러분의 디자인이 데스크톱을 넘어 다양한 기기에 맞춰지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

태스크톱을 뛰어넘는 상상력, 사용자의 필요를 예측하여 반응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방법을 익히보세요. 이단 마켓이 가변 그리드, 가변 이미지, 미디어 쿼리 등 다양한 CSS 기술과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화면 크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사용자에게 고품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 사이트에 맞게 작동하는 기기와 플랫폼, 브라우저의 수가 날로 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필요 속에서 이단의 솔직담백한 디자인 접근법은 사이트 제작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제프리 빈 Jeffrey Veen, Typekit CEO 및 창립자

“ 때때로 웹디자인계에는 제프리 젤드먼 Jeffrey Zeldman의 《제프리 젤드만의 웹표준 가이드 Designing with Web Standards》나 도우 보우먼 Doug Bowman의 ‘Wired.com redesign’과 같이 시대를 풍미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곤 한다. 이 책 역시 새로운 바람이다. 통찰력, 재치, 실용성을 모두 갖춘 《반응형 웹디자인》은 웹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마크 볼튼 Mark Boulton, Five Simple Steps 창립자

“ 디킨스 Dickens, 헤밍웨이 Hemingway, 스타인벡 Steinbeck 그리고 호머 Homer도 이 새로운 고전을 쓴 마켓에 비할 수 없을 것이다. 마켓의 사인이 적힌 초판본을 사라. 그리고 한 권을 더 사도록 하라(저자가 사인한 책은 잘 보관해야 하니까 말이다).”

제러드 스폴 Jared Spool, User Interface Engineering CEO 및 창립자

값 18,000원



ISBN 978-89-963498-3-9

